

# 영어음성학

일어일문학과

2017131326 주형준

이 수업의 최종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음성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통해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의 자음과 모음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여기서 모음과 자음의 소리는 우리가 Alphabetical 하게 아는 철자적인 것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말할 때 나올 수 있는 소리들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 생소한 표기의 자음 소리들도 몇 있었다. 실제로도 모든 소리를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어에는 없는 소리까지 다 표시되어 있다. 모음의 경우 단모음(monophthongs)과 장모음(diphthongs)로 구별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자음들과 모음들의 발음과 같은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입안에서 일어나는 혀의 위치, 높낮이, 성대의 열림 유무 등 다양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 그것이 음성학, 즉 Phonetics인 것이다.

음성학은 사람의 말에 대한 연구와 어떻게 그 말이 묘사되는지 음성학적인 연구 등을 포함한다. 조음(Articulation)은 성도(聲道)의 영향을 받는다. 성도는 코, 귀, 인두와 성대를 포함하는데. 코로 나오는 것이 nasal tract이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oral tract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안에도 위치별로 정말 세부적으로 다양한 기관 명이 있다. Oral tract의 경우 혀, 입술, 치아, 성대, 목젖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다양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위 아래로 구성요소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성도의 윗부분은 upper lip, velum, alveolar, teeth 등을 말하며 아랫부분은 tongue의 tip, front, back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랫입술을 포함한다.

성대에서 발성이 시작되면 velum을 통해 oro-nasal과정으로 입 안에서 조음과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성대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 엄청난 횟수로 진동을 하고 그것이 발성을 만든다. 그 안에서는 진동을 느낄 수 있는지의 유무로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나눌 수 있다. 유성음(voiced)의 경우는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음으로 v, z, l, m, a, I 등이 있으며 무성음(voiceless)의 경우는 진동을 느낄 수 없는 음으로 f, s, k, p, h 등이 있다. 자음은 유성음일 수도 무성음일 수도 있지만 모음의 경우 모두 유성음이다.

연막(velum)에서는 oral-nasal 과정이 일어난다. 한국어로 구비(口鼻)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막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콧소리를 낼 수 있다. M n ng과 같은 소리이다. 입을 닫고 있어도 음은 응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조음 과정은 위아래입술과 혀끝 그리고 혀의 몸통부분에서 일어난다. 그러한 조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constrictors라고 한다. 그것들의 제어를 통해서 더 많은 소리들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CL은 Constriction location의 약자로 제

약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지를 따지는 것이고, CD는 Constriction degree의 약자로 얼마나 정확한지를 따지는 것이다. CL의 경우 입술이 어디를 치는지, 혀의 몸체가 어디를 치는지, 혀 끝이 어디를 치는지에 따라 소리의 구별이 생긴다. CD의 경우는 4가지 정도 (stops, fricatives, approximants, vowels)로 구분이 가능하다.

Phoneme는 소리의 발음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psycho의서 p,s,y,c,h,o는 각각의 철자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psycho의 발음인 s ai k ou 각각의 발음을 phoneme라고 할 수 있다. Phoneme는 발음기관에 따라서 소리가 나뉘어진다.